

- 주요 뉴스: 미국 1월 근원 PCE 가격지수, 전월대비 반등하면서 연준 통화긴축 전망을 강화
 - 연준 주요 인사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 다양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화완화는 적절
 - G7, 대러 제재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강조 제3국에 러시아 지원 경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월 PCE 가격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

주가 하락[-1.1%],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월 PCE 가격지수 반등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1.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강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1.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전망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13.9원, +10.6원) 0.8% 상승, 한국 CDS 상승

		2/24일	2/23일	전일대비			2/24일	2/2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70.0	4,012.3	-1.05%	국채 금리 10y	미국	3.94%	3.88%	6bp
	유럽	457.70	462.50	-1.04%		독일	2.54%	2.48%	6bp
	중국	3,267.2	3,287.5	-0.62%		영국	3.66%	3.59%	7bp
	일본	27,453	휴장	0.04%	CDS 5y	한국	45bp	44bp	1bp
	한국	2,423.6	2,439.1	-0.63%		중국	74bp	70bp	4bp
환율	달러지수	105.26	104.60	0.63%	위험 지표	EMBI+	-	385	-
	유로화	1.0548	1.0596	-0.45%		VIX	21.67	21.14	2.51%
	엔화	136.48	134.70	-1.32%		WTI유	76.32	75.39	1.23%
	위안화	6.9601	6.9081	-0.75%	원자재	구리	395.2	405.9	-2.64%
	원화	1,304.8	1,297.1	-0.59%		금	1,811.0	1,822.3	-0.6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월 근원 PCE 가격지수, 전월대비 반등하면서 연준 통화긴축 전망을 강화

- 1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면서 12월 4.4%에서 반등하고 예상치(4.3%)를 상회. 전월대비로는 0.6% 상승해 전월(0.3%)과 예상치(0.4%)를 모두 상회. PCE 가격지수 상승률도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5.4%로, 12월 수치 상회
- 1월 PCE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6% 증가해 예상치인 1.0%를 밑돌았으나, 개인 지출은 '21.3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8% 증가해 예상치인 1.4%를 상회. 1월 신규 주택 판매건수도 전월대비 7.2% 증가하면서 전월비(2.3%)와 예상치(0.7%) 상회
- 물가지표는 반등하고 개인지출은 약 2년만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여름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우려가 확대. 스왑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5월에 이어 6월에도 금리를 25bp씩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 강화. 2년물 미 국채금리는 '07년 이후 처음으로 4.82%까지 급등
- Bloomberg Economics는 견조한 지출과 근원 물가상승세 가속화는 인플레이에 부정적 소식이며, 공급망 차질이 대부분 해소된 현재 수요가 인플레이를 주도 중이라고 평가. 동 추세 지속 시 연준이 12월 점도표에서 제시한 5.25% 이상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 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하며 5%를 상회하는 수준의 정책금리를 선호한다고 발언. 미국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경기침체는 모면할 것으로 평가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지속 인상해야 하며 더욱 오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인플레이는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지표는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음을 의미한다고 부연
-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연준이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와 시장 기대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 중이며, 노동시장 영향으로 인플레이 둔화가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
-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상황이 '신뢰할 수 있는(credible)' 디스인플레이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현재 연준은 과거에 비해 더욱 신뢰를 얻고 있으며, 연준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인플레이를 완화하고 경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

■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 다양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화완화는 적절

- 우에다 지명자는 중의원 인준 청문회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통화완화는 현재 적절하며 정부와 협력해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 발언.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지속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목표달성 가시화 시 정책 정상화를 고려할 방침
- 시장에서는 우에다 지명자가 일본은행의 기존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며 청문회 발언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다수. OCBC는 우에다 지명자가 경제 여건 판단을 위해 경제지표를 주시하며 점진적이고 완만한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

■ G7, 대러 제재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강조. 제3국에 러시아 지원 경고

- G7 정상들은 러-우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 표명. 대러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강조.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시 중대 후과가 따를 것이라 경고
- 백악관은 대러 제재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의 90여개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 러시아산 금속 광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200% 부과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발표.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20억 규모 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표명

■ 일본 1월 근원 CPI,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면서 전월에 이어 41년래 최고치 재경신

- 근원 CPI(신선식품 제외)는 지난 12월 4.0%(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해 41년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한 데 이어 1월 4.2%로 추가 상승. 근원 CPI가 10개월 연속 일본은행 목표(2%)를 상회했으나 대부분 식료품과 석유가격 상승에 기인하면서 통화정책 부담 가중

■ 중국인민은행,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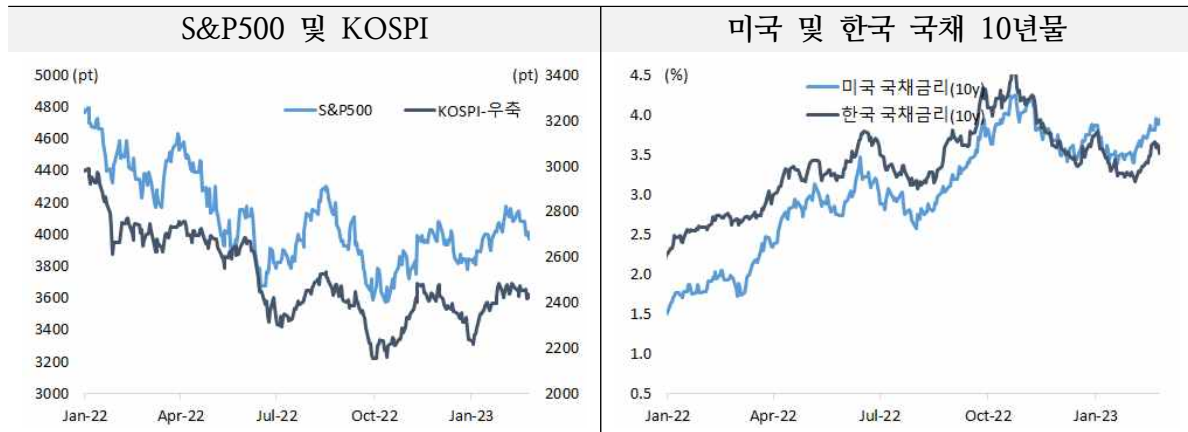
- 인민은행은 정책 시행 분기 보고서에서 '23년 중국경제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홍수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지양하고 내수 확대 지원과 성장물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표명. 풍부한 유동성 여건을 지속하고 신용증가율도 효율적으로 유지할 계획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7 현지시각 기준)

-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 참의원 인준 청문회 출석 예정. 미국 1월 내구재 수주, 유로존 1월 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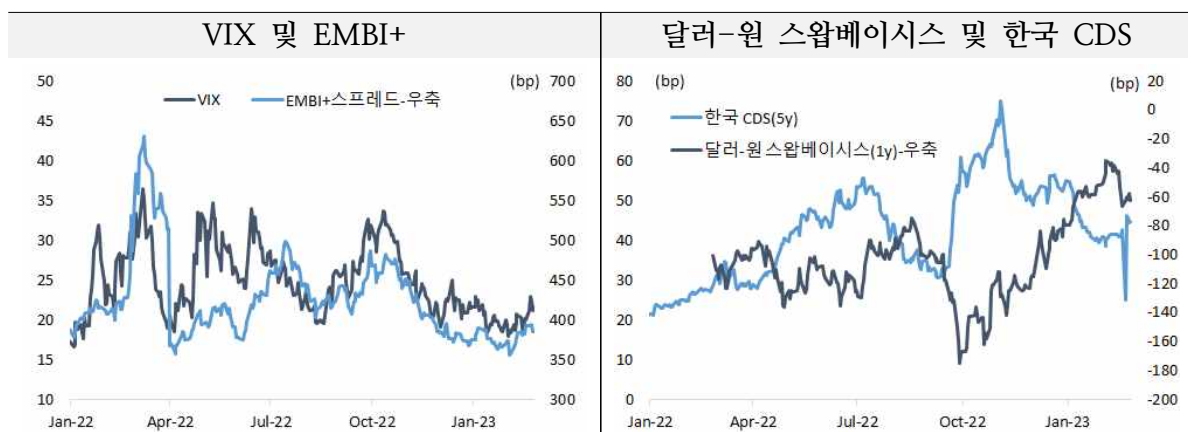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